

KLI 고용·노동리포트

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

2012. 11. 30 | 통권 제34호(2012-22)

베이비붐 세대의 고용

[요약]

- 2011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(1955~1963년생)는 생산가능인구의 17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정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은퇴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.
- 세대별 분석(cohort analysis)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(1955~1963년생)의 경합률, 고용률, 상용직 비중, 자영업 비중 등 고용지표는 이전(1950~1954년생) 세대에 비해 양호함. 특히 세대간 고용률의 차이는 여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 베이비붐 세대 중 2010년 정년을 맞이한 1955년생의 경우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보다 미취업률은 낮고, 1개월 실직자 비중, 이들의 비자발적 이직 비중은 이전 세대와 추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(2012년 8월 기준).
-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의 일자리로 재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 당월 취업자 중 초저임금근로자(시간당 중위임금의 1/3 미만) 비중은 2011년 8월 9.4%에서 2012년 8월 10.3%로 증가하였으며,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.
- 세대간 고용률 패턴을 통해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이전 세대와 유사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며,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늦춰야 하고, 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, 정년 후 재고용, 재취업 유인 등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들이 요구됨.

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

- 2010년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들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.¹⁾
 - 대부분 비교역재의 특성을 갖는 자영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함을 감안한다면, 자영업의 수익률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고 이는 곧 베이비부머의 은퇴, 자영업 창업,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 -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반전된 후 2012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23천 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

우려가 실제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베이비붐 세대는 2011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17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들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76.8%, 75.3%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 - 2011년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20천 명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했고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됨.
 -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는 2011년 현재 1,804천 명으로 전년대비 9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하는 추세를 보임. 이들 중 1년 이

〈표 1〉 베이비부머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

(단위:천 명)

	2009		2010		2011		2012.8	
생산가능인구	7,245	(-34)	7,326	(80)	7,292	(-34)	7,268	(26)
경제활동인구	5,628	(-100)	5,660	(32)	5,603	(-57)	5,534	(64)
(경제활동참가율)	77.7	(-1.0)	77.3	(-0.4)	76.8	(-0.4)	76.1	(-0.6)
취업자	5,491	(-122)	5,531	(40)	5,488	(-43)	5,420	(67)
(고용률)	75.8	(-0.1)	75.5	(-0.3)	75.3	(-0.2)	74.6	(-0.1)
실업자	137	(22)	129	(-7)	116	(-14)	114	(-3)
비경제활동인구	1,617	(66)	1,666	(48)	1,688	(23)	1,734	(-38)
미취업자(실업+비경활)	1,754	(88)	1,795	(41)	1,804	(9)	1,848	(-41)
실직경험자(1년 미만)	556	(52)	578	(22)	581	(3)	609	(-30)

주: 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감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1) 베이비붐 세대는 합계출산율이 3.0%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하며, 미국은 1946~1964년생이,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하여 1947~1949년생이 여기에 해당한다.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1955~1963년생으로 한정한다.

내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실직경험자는 미취업자의 32.2%로 나타남.

- 세대별 분석(cohort analysis)을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(1955~1963년생)의 고용지표는 이전(1950~1954년생), 이후

(1964~1968년생) 세대에 비해 양호함.

- 은퇴가 시작된 1955년생의 고용률은 이전 세대 동일 연령에 비해 높으며, 특히 은퇴 시작시기인 55세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고용률이 2.9%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2〉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고용증감 및 비중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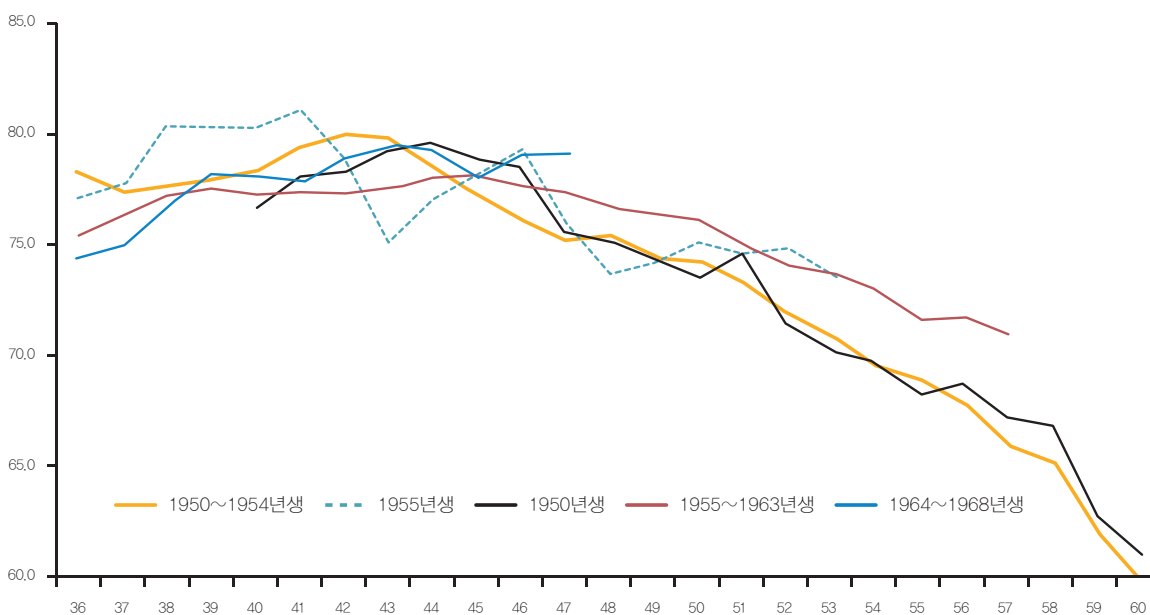
(단위:%)

	2009		2010		2011		2012.8	
임금근로	61.3	(0.7)	62.2	(1.0)	62.4	(0.1)	62.3	(0.2)
상용직	33.3	(1.7)	34.9	(1.6)	35.3	(0.4)	36.3	(1.3)
임시직	18.0	(-0.3)	18.3	(0.3)	18.4	(0.2)	17.6	(-1.0)
일용직	10.0	(-0.7)	9.1	(-0.9)	8.7	(-0.4)	8.4	(-0.2)
비임금근로	38.7	(-0.7)	37.8	(-1.0)	37.6	(-0.1)	37.7	(-0.2)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10.3	(0.2)	9.8	(-0.5)	9.2	(-0.6)	9.0	(-0.1)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21.5	(-0.9)	21.2	(-0.3)	21.7	(0.5)	22.2	(0.2)
무급가족종사자	6.9	(-0.1)	6.7	(-0.2)	6.7	(0.0)	6.4	(-0.3)

주: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고용비중 변화임.
 자료: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〔그림 1〕 출생코호트별·연령별 고용률 패턴

(단위:%)



자료: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-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 간 고용률 차이는 여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큼.

- 1955년생 여성이 55세일 때 고용률은 58.5%로 이전 세대인 1950년생 여성이 55세일 때 고용률 52.2%보다 6.3%p 높아 남성의 2.2%p 격차보다 컸음.

- 베이비붐 세대(1955년생)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임.

- 상용직 비중은 55%를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55세 이후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, 이전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-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

중은 남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여성의 변화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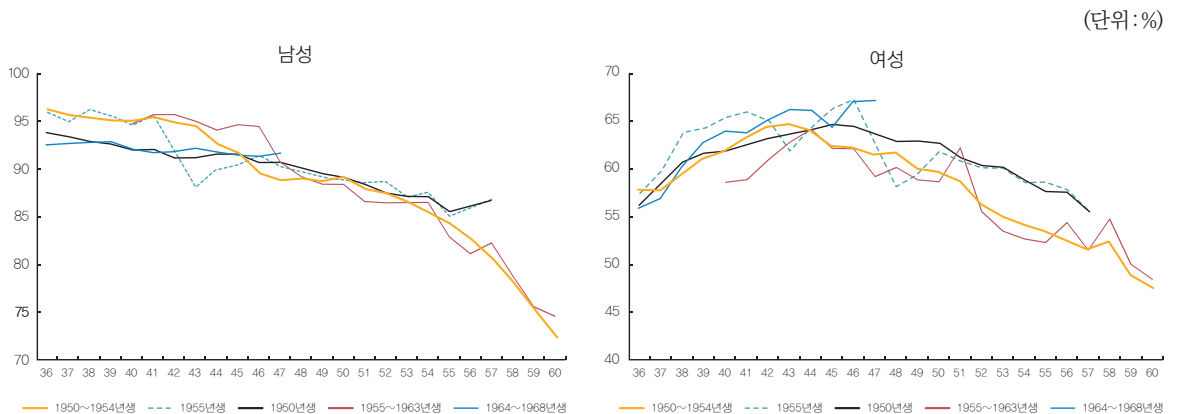
- 베이비붐 세대(1955년생)의 자영업 비중은 35% 전후한 수준에서 상승추세를 보이지 않고,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-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률은 이전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임.²⁾

-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 규모는 2012년 8월 현재 217천 명으로 이전 세대 동일 연령층의 165천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, 미취업률은 낮음.

- 코호트 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50세 이상 중·고령층에서의 미취업자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출생코호트별·성별·연령별 고용률 패턴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2)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와 1개월 실직자는 1955년생을 기준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료를 활용하였고, 이전 세대는 1950년생을 기준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자료를 활용하였다.

〈표 3〉 출생코호트별·성별 생애노동

(단위: %)

		1950~1954년생			1955~1963년생			1950년생			1955년생		
		45세	50세	55세	45세	50세	55세	45세	50세	55세	45세	50세	55세
전체	고용률	77.2	74.3	68.9	78.1	76.0	71.7	78.9	73.5	68.3	78.3	75.1	71.8
	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	37.8	38.3	36.1	32.2	32.7	32.9	38.4	41.3	38.4	35.6	35.9	34.3
	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	53.9	45.9	49.7	50.9	53.5	56.4	55.4	44.6	46.5	49.0	47.3	54.8
남성	고용률	91.8	89.3	84.4	91.7	89.3	85.7	94.7	88.4	82.9	90.5	89.0	85.1
	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	46.2	46.8	43.5	39.7	40.6	40.8	45.8	49.1	43.3	44.2	45.5	43.1
	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	69.7	61.6	64.5	66.8	68.7	70.3	69.3	63.3	59.3	67.1	66.8	68.9
여성	고용률	62.2	59.5	53.3	64.5	62.6	57.5	62.0	58.5	52.2	66.2	61.7	58.5
	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	25.2	25.8	24.4	21.3	21.4	21.0	26.3	29.4	29.8	23.8	22.5	21.3
	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	27.7	22.9	26.8	28.2	32.2	37.4	29.6	16.7	21.9	21.9	21.4	36.5

주: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[그림 3] 출생코호트별·연령별 자영업자 비중과 상용직 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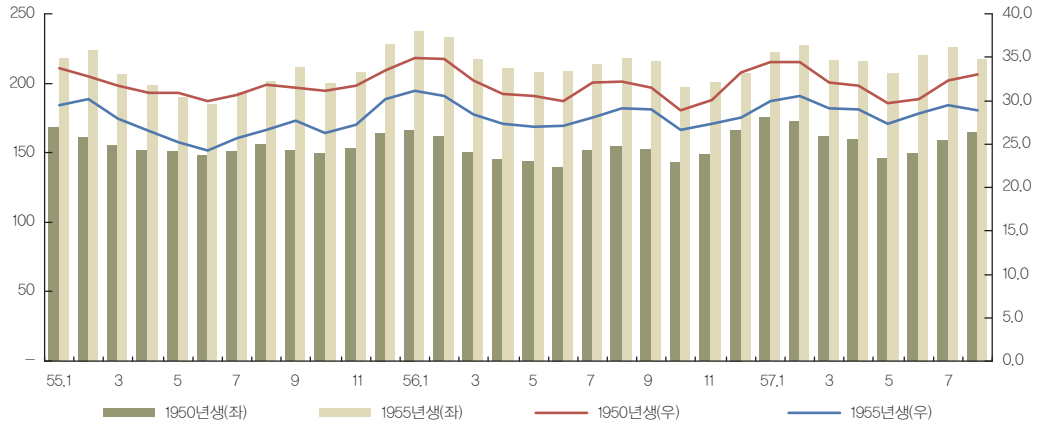
주: 1950년생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, 1955년생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함.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잃은 1개월 실직자의 규모는 9천 명으로 조사 전월 취업자 대비 1.6%였으며, 이는 이전 세대인 1950년생 동일 연령대보다 다소 높지만, 추세

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.
 - 또한 1개월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직 사유를 살펴본 결과, 비자발적 이직 비중이 이전 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.

[그림 4] 1950년생과 1955년생 연령별 미취업자 규모와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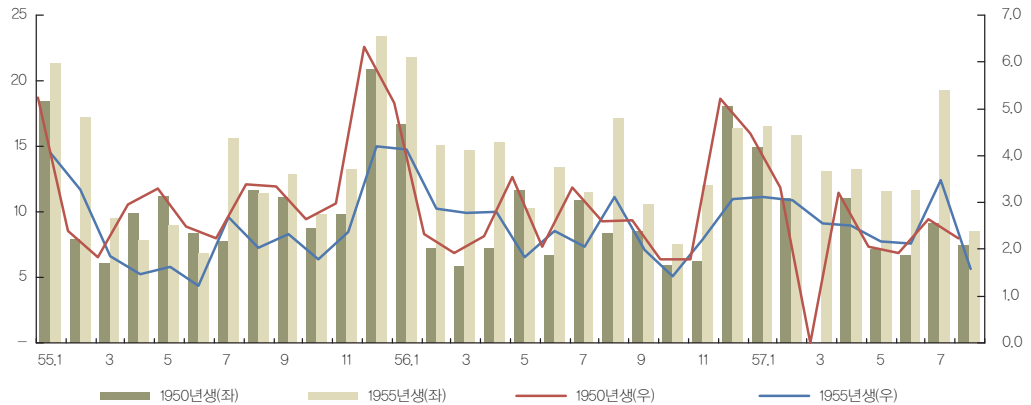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[그림 5] 1950년생과 1955년생 연령별 1개월 실직자 규모와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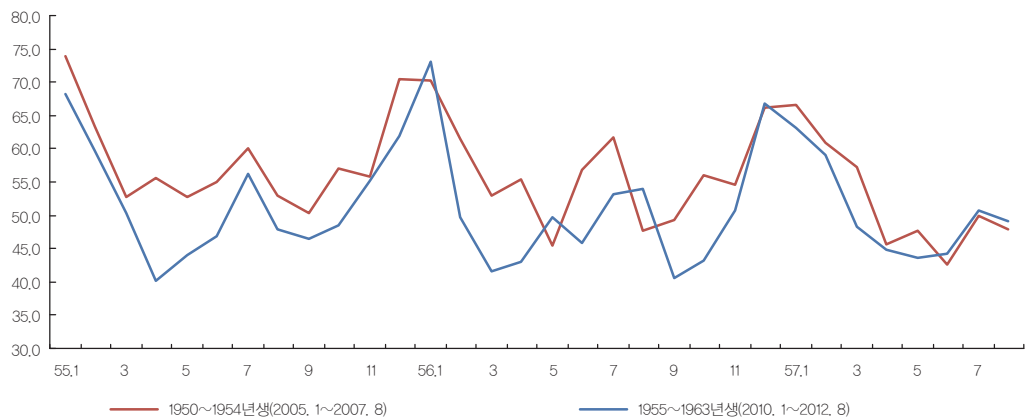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

주: 1개월 실직자는 조사 당월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전달에는 취업상태였던 자를 의미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[그림 6]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비자발적 이직 비중(1개월 실직자 기준)

(단위: %)



주: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정년퇴직·연로, 직장의 휴·폐업, 명예·조기퇴직·정리해고,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,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에 해당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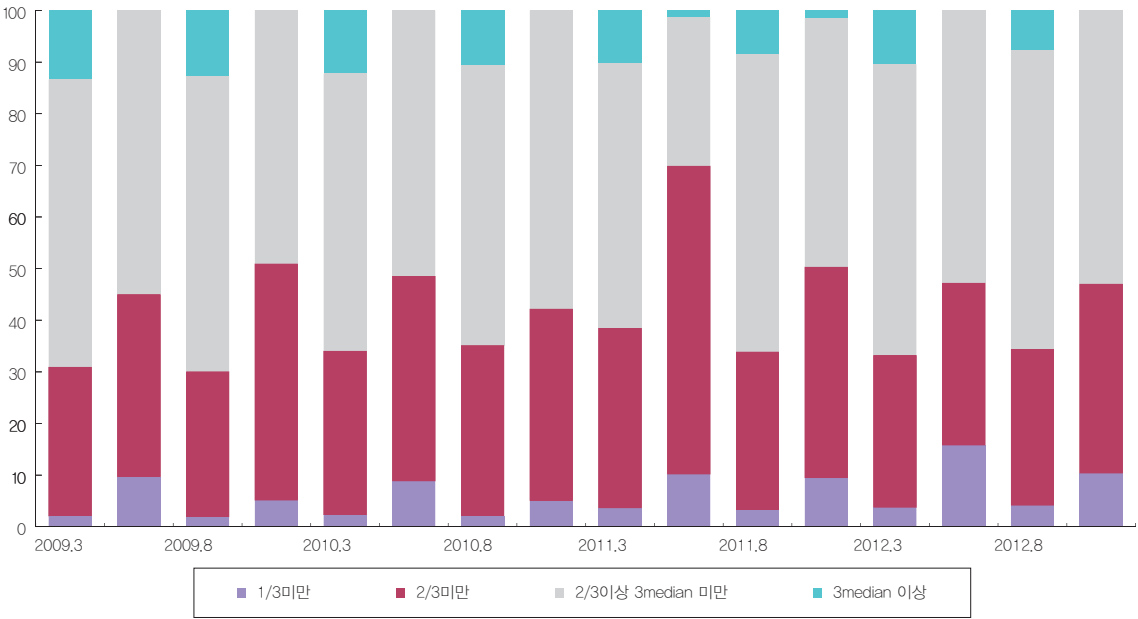
- 지금까지 코호트 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, 미취업률이나 1개월 실직자 비중 또한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.
-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의 일자리로 재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의 저임금 근로자는 2012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30.3%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아직은 은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상용직 중심의 편잡은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

는 것으로 보임.

- 그러나 시간당 중위임금의 1/3 미만인 초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.1%로 2011년 8월 3.2%에 비해 증가함.
-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 당월 취업자 중 초저임금 근로자는 2012년 8월 10.3%로 전년동월대비 9.4%에 비해 증가함. 특히 2012년 3월에는 15.8%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다급하게 임금근로로 간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의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.

[그림 7] 1955년생 임금근로자와 당월 취업자의 임금수준

(단위: %)



주: 임금수준은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(median)을 기준으로 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- 또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의 2010년 이후 자영업 창업은 이전 세대에 비해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활발하며, 자영업 창업 시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줌.

- 이들은 주로 ‘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(적금, 퇴직금, 명퇴금 등)’ 57.8%, ‘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(사업승계, 무자본 창업)’ 34.4%로 나타나 퇴직금, 명퇴금으로 자금조달하여 창업하거나 무자본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더불어 은행이나 보험회사, 상호신용금고에서의 대출 또한 크게 감소하였고, 2010년 이후 창업한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은 음식숙박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천만 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.

- 세대간 고용률 패턴에서 이미 확인했듯이,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들의 고용률은 상당히 하락할 것이며, 이로 인해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
-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늦춰야 하고, 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, 정년 후 재고용, 재취업 유인 등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이 시급함.

안주엽(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jyahn@kli.re.kr / 02-3775-5555

김복순(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)
seesaram@kli.re.kr / 02-3775-5579

※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.kli.re.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발행인 : 이인재 / 편집인 : 남재량 / 편집·교정 : 정 철
150-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Tel : 02-3775-5514 / Fax : 02-3775-0697 / www.kli.re.kr